

문화예술교육 효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발행월 2019년 12월 |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발행인 이규석 | 홈페이지 www.arte.or.kr

우리사회 주요이슈를 문화예술에 접목, 결합한 이슈리포트 발간으로 문화예술교육 핵심의제를 도출하여
담론을 형성,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슈를 던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이슈, 왜 기획하였는가?

기획 의도

이슈를 말하다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어떻게 해오고 있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의 중요성과 경향성

이슈를 논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를 위한 시사점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방향성 제언

이슈를 전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현실적 접근 방법 찾기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 전문가 논의 정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이슈, 왜 기획하였는가?

[총괄기획 및 정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교육R&D팀

● 들어가며

4차 주제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의 고찰과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변화는 즉각적이기보다는 직간접적, 장기적으로 서서히 드러나는 특성이 있음에도, 문화예술 교육“효과”를 만병통치약처럼 정책적 성과로 가져가려다 보니, 단기적 결과에 집중하거나 명확한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 규명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가 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그간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전/후 과정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 수치로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임상 심리적 지표와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차이를 집단별 비교 분석하는 경우이다. 객관적이고 정밀함을 요구하는 양적 연구는 참여자의 개별 효과와 단기 결과에 집중하거나 사업의 성과평가로 대체되는 등 과정부터 결과까지 포괄적인 효과 범위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효과성을 판단하는 요인과 구성요소 개념이 연구자와 연구 방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기간/방식/내용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로 발생하는 한계와 과제가 상존하고 있어서 상호보완으로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몇 년 사이에 생리적, 뇌 과학적 접근을 통해 효과성을 의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시도됨에 따라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과 주변 환경을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의미를 토대로 통찰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적/종합적 효과연구가 그 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엘 시스템인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종단연구”이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이 중심대안 모델로 제기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정립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고민해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측정 방법의 한계와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향후 효과성 연구 측정 방법의 시사점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어떻게 해오고 있나?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의 중요성과 경향성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임승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¹⁾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의 중요성

프로그램 효과성은 책임성을 강조하는 현시대에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 수단이다. 특히 효과성 측정은 계량적 사실 확인을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산출 결과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와 대상자에게 의도했던 변화의 전후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와 프로그램 전, 후 비교 또는 참여-비참여로 이뤄지는 실험설계 방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과 결과는 매개자(예술강사, 행정인력 등)의 책임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천 능력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에게 학습을 통한 알 권리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행정가에게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 방법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 경향성

1. 국내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사례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는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기반 연구이다. 연구 초기,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 파악에 기울어져 있어 참여 아동의 성장과 그들의 가족, 더 넓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 시점을 조사 자료로 활용한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모집단 확보와 품질 검증의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표 1>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효과 연구 현황

연도	연구명	특징
2011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사업평가	논리모형에 기반 한 학습영향평가 모델 개발, 참여자 발달은 만족도 단계에 머무름
2011	꿈의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 모델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모델 적용, 척도로 평가하지 않음. 표본의 한계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효과성 평가	CIPP 모델 적용, 척도로 평가하지 않음. 표본의 한계
2014	사업 효과성 평가와 공연효과성 평가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확인 어려움
2016~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1차 패널)	종단연구, 양적/질적 연구방법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2차 패널)	종단연구, 양적/질적 연구방법

1) 본 장의 원고는 2019년 12월 6일에 개최한 <2019 문화예술교육 4차 콜로кви움> 발제자인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 사례 중심으로”, 임승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효과연구 사례 중심으로” 원고를 활용한 것임

<표 2>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와 이행 내용 :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 사례 중심

기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와 이유		본 연구의 세부 이행 내용
1) 연구 모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효과 검증을 위해 효과성 요인에 이론모형, 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 개인, 사회 영역, 경험과 경험의 축적의 과정에서 인적 상호작용 과정 추가, 예술가치를 규명하는 Carnwath와 Brown(2014) 모형 적용·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의 5가지로 구분
2) 연구 윤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연구대상이 아동이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의 취약 대상자인 경우 연구윤리심사를 득해야 함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명시)· 연구윤리심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생명윤리관련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IRB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의 사전 연구계획서를 연구의 주관기관 소속인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 윤리 심의를 득하는 과정을 거침
3) 척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된 척도 사용은 심리적 특성을 판단하는 토대로 활용, 현재 조사대상자와 과거의 다른 조사대상자와의 비교 가능· 표준화된 척도는 사전이나 평가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줌·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척도 사용의 중요 장점임 (김영중, 1999; 홍두승,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에서는 음악적 성장 척도를 엄중한 절차에 의해 개발, 본 척도를 활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아동의 음악적 성장(세부 요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을 측정
4) 효과 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생리적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측정은 응답의 성실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기억의 회상능력 등에 의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음· 측정기준과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 평가자간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자기보고 방식과 객관적, 과학적인 다양한 생리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도 검증의 한계 보완, 융복합적 방법 진행· 2012년부터 심박수변이, 타액코티졸과 알파아밀라제, 뇌영상학적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향성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에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타액 코티졸 검사 실시
5) 양·질적 패널 연구진행	양적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오케스트라는 본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하기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시도된 적 없는 패널 구축은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에서 첫 시도를 하여, 3년으로 추진함. 3년간 패널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 아동들의 변화를 종단적 관점에서 검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질적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에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질적 종단연구 시행, 개인, 집단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뤄지고 있음

※ 정경은의 원고(자료집 본문 6~13쪽)를 요약하여 표로 재구성함

연구자들은 몇 가지 시도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 방법에 있어 측정 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시도 내용을 <표 2> 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로,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아동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면, ① 음악적 성장 영역은 음악적 성장의 지속적 상승,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자발적 연습과 노력이며, ② 개인발달 영역에서는 자존감, 의사소통, 미래전망 유지, 생리적 스트레스 수준 감소 유지로 나타났고, 자발성과 적극성의 유지,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유지, 음악에 대한 진로전환, 자기 치유로 나타났다. ③ 인적관계 영역에서는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협동협력의 유지, 배려와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능력을 나타냈고, ④ 공공적 함의와 사회적 혜택 영역에서는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이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성실과 언어능력, 보호자와의 친밀감은 단기효과로 검증되었으나 장기적 효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표 3>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종합 결과

대상	영역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아동	음악적 성장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악기(음악)에 대한 애착* 음악 취향의 변화* 음악적 몰입과 음악을 대하는 주도적 자세*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 합주 역량 성장과 합주의 즐거움 알기*	음악적 성장의 지속적 상승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자발적 연습과 노력*
	개인 발달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언어능력 수학능력 스트레스 수준 감소** 음악 활동을 통한 집중력의 향상과 자기절제* 담당 악기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우는 책임감* 자발성과 적극성* 활달해지고 밝아진 성격*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자존감 유지 의사소통능력 유지 미래전망 유지 수학능력 유지 스트레스 수준 감소 유지 자발성과 적극성 유지*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유지* 음악에 대한 진로전환* 자기치유*
	인적 관계	타인수용도 보호자와의 친밀감 타인배려 협동협력 다양한 친구 사귀기* 가족의 유대감 및 대화 증가* 피어티칭* 밝아진 성격* 함께하는 즐거움 알기*	타인수용도 유지 타인배려 유지 협동협력 유지 배려와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능력 (피어티칭의 중요성 인식)*
	공공적 함의, 사회/경제적 혜택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 공동체 규범*	사회적 신뢰 유지 소속감/유대감 유지 공동체 참여행동 유지 사회자본 유지
	만족도	4.07점	4.35점 (단기적 효과 대비 6.9% 증가)
보호자		오케스트라의 가치 가족문화 변화*	오케스트라의 가치 지속상승
교육 강사		지역문화 생산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강사의 타인수용도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과 공감하며 교육자로 성장* 음악을 즐기는 건강한 사회인의 배출에 기여하는 혜택 요인*	교육강사의 보람과 행복* 음악을 즐기는 건강한 사회인 배출*
↑ ↑			
영향요인	아동발달 영향요인	부모의 지지> 단원자부심, 참여적극성>동료 지지>타음악교육 경험 교육강사의 관심과 칭찬* 간식* 교육강사의 교수법* 연주회를 통해 얻은 성취감과 특별한 경험* 새로운 친구 만나기* 단원들 간 상호작용과 유대*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칭찬* 새로운 도전과 자극* 교육강사의 역할과 진심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변화* 성공적인 연주의 경험*
교육 강사	만족도 영향 요인	내용만족도 > 참여적극성 > 단원소속감 > 운영기관 및 행정만족도	내용만족도 > 환경만족도 > 강사만족도
장애요인		합주 시 실수에 의한 스트레스* 부족한 악기편성* [보호자] 물리적 접근성* 음악적 성장 속도 차이* [강사] 교육강사의 교체* 아동의 음악적 권태* 열악한 연습 공간* 고학년 진학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	교육강사의 부당한 언행 및 꾸지람* 높아지는 곡의 난이도* 값비싼 악기* 학원과의 병행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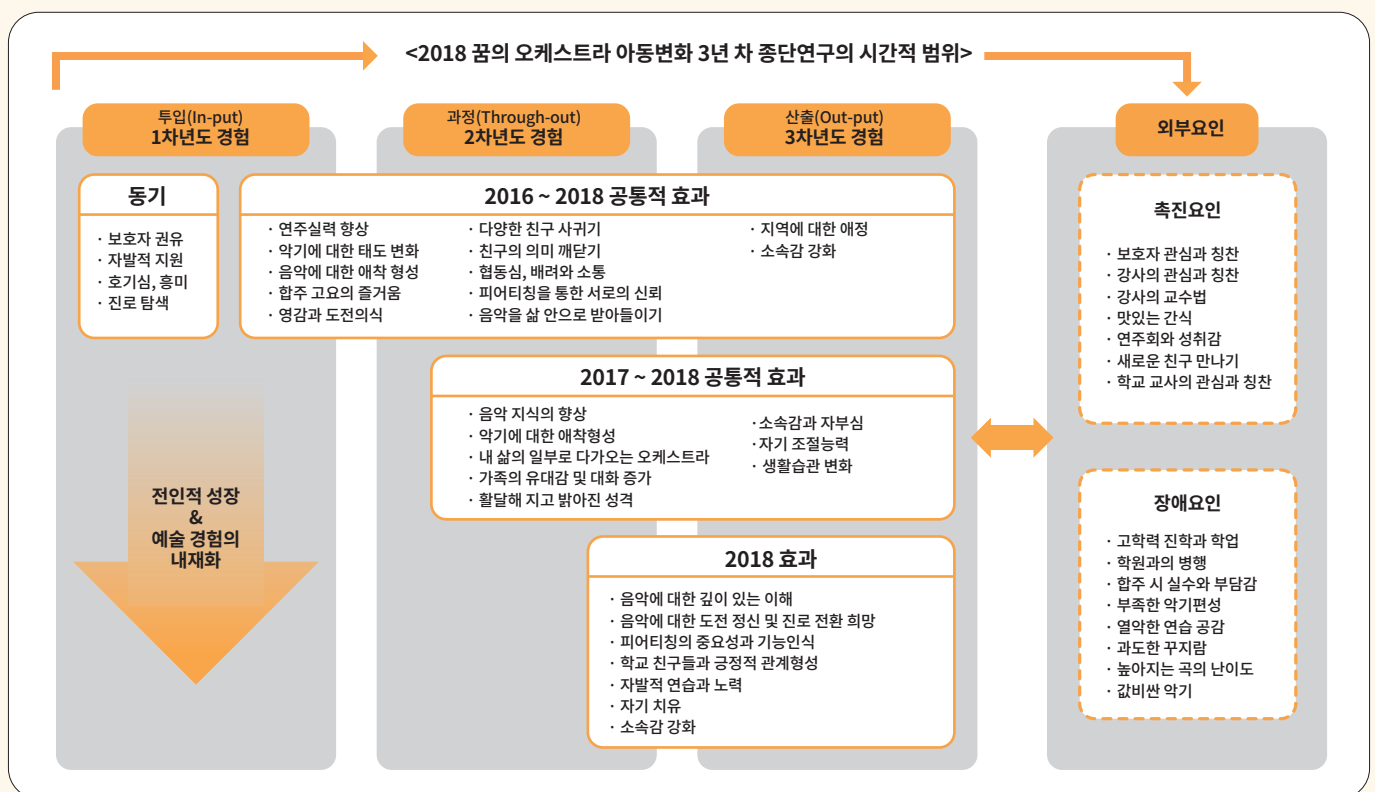
※ 주석: *질적연구결과, **생리적 연구 결과이며, *가 없는 곳은 양적 연구 결과임

※ 출처: 임영식 외(2018)

또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는 3년간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1차, 2차, 3차 연도의 인터뷰에서 지속해서 ① 연주 실력의 향상, ② 악기에 대한 애정, ③ 음악지식과 음악 전반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를 주요한 변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음악 외에 변화로 ① 개인적 성장의 변화(자기조절능력, 협동심과 책임감 향상, 자신감 향상), ② 인적 상호작용의 변화(가족 간 대화 증가, 새로운 친구 만들기과 친화력 향상)를 공통으로 증언해 왔다. 중장기적인 가장 큰 발전은 오케스트라 활동의 꾸준한 참가로 인해 나타나는 음악적 성장의 내재화로 압축할 수 있다.

1차, 2차, 3차 연도의 연구결과 비교 시, 3차 연도 연구에 드러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음악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 외의 교육 효과, 촉진요인, 기대요인, 개선방안 증언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매우 구체화 되고, 다채로워지며, 명료해졌다는 점이다. 협동심과 소통능력 향상은 3년간의 연구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아동의 변화이며, 2018년도 연구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보고된 주요한 변화 중 주목할 요소는 피어티칭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이에 대해 자발적 활용방안과 연습방식이었다. 이에 더해 가족의 유대감과 대화 증가에 대한 보고가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변화로 분석되었다(임영식 외, 2018).

[그림 1]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 질적 종단 연구 결과



※ 출처: 임영식 외(2018)

2. 국외: 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례

국외의 경우, 총 9개의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측정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 와 같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얻었는지에만 주목했었고, 이런 효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과 측정 방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국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사례

연구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기 구축된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		
Southgate & Roscigno (2009)	· 미국 교육부 종단 패널 데이터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ECLS-K) ²⁾ 와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NELS:88) ³⁾ 활용	· 음악 교육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규명 · 학교 또는 학교 밖의 음악 참여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
Catterall (2012)	· 미국 교육부와 노동부 지원으로 영유아부터 어린이/청소년/청년층까지 변화와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4개의 종단 패널데이터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lass of 1998-1999, and the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of 1997)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	·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학업 성취도 자원봉사, 투표, 지역사회 활동과 같은 시민행동,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간 관계성 규명 ·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 사회, 노동시장에서 창출하는 긍정적 가치 제시
Hill & Shupp (2015)	· 독일사회경제패널 (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데이터를 이용	· 음악교육이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비인지적 발달 영역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규명 · 음악 활동 참여 경험은 청소년의 인지적 기술과 학업 성적, 성실성, 개방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비인지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기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문화예술 효과성 규명의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		
Wright et al. (2006)	· 캐나다에서 2년 단위로 추적되고 있는 전국 아동/청소년 종단 조사 (NLSCY;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의 패널 데이터를 통계집단으로 활용	· 문화예술교육은 참여 아동들의 예술적 역량 함양 · 우울, 행동 장애, 낮은 자존감과 같은 문제를 감소 · 협력, 갈등해소, 팀워크 기술 등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킴
기 구축된 패널 데이터와 1차 데이터 통합 사례		
Bowen & Kisida (2019)	· 미국 휴스턴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Houston's Arts Access Initiative(AAI)의 효과성을 42개 학교 4-8학년에 재학 중인 10,548명 대상 검증 · 휴스턴 교육 연구 컨소시엄(HERC; Houston Education Research Consortium)의 종단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국 휴스턴의 독립학군(HISD;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을 통해 학생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관련 기본 정보 수집 · 학생들 설문조사에 이용될 측정도구는 HISD와 협업 개발	· 참여 아동 대상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분석에 이용 · 교육관련 행정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 · 해당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은 학교 내 규율 위반 비율을 3.6% 감소, 학교 참여도, 대학 진학 의지, 작문 실력, 타인에 대한 연민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대상이 되었던 HISD는 아프리카, 히스패닉, 라틴계 비율이 86%에 달하는 지역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소외계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
호주의 Sound Link 프로젝트 사례 ⁴⁾		
호주 퀸스랜드 연구센터, 그리피스 대학교, 호주 음악위원회, 호주 음악연합회, 음악교육을 위한 호주 사회 기관 협업	·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통합 연구방법 검증 · 사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적용 *사례분석은 호주 전역에서 선정된 6개 지역음악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이용 가능한 2차 자료, 현장방문, 반구조화 질문 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참여관찰 연구방법 활용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분석 해석 결과 타당성 제고	· 지역사회 음악의 효과성과 지역사회 음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제언
영국의 Talent25 프로젝트 사례 ⁵⁾		
영국예술위원회와 몽포트대학 협업	· 참여 가족은 6개월마다 연구진과 만나 아동들의 문화예술경험과 성장 공유 · 아동의 문화예술경험은 음악 듣기와 배우기,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이용 경험 등 다양한 범주에서 관찰 · 연구가 시작된 2019년에는 패널 유아들에게 적합한 문화예술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영유아 관련 단체들(Leicester Libraries, Children's Centres and Neighbourhood Services)의 0-5세 아동 전문가들과 협업 · 2달 간 25회 무료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모색, 효과성 평가 사례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육대학원의 시각적 예술에 근간한 교육프로그램인 예술적 사고 프로젝트(Arts Thinking Project)		
Tishman & Palmer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 4-6학년 학생 대상 교육 효과성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규명 · 응답자에게는 3개 시점에 걸쳐 '좋은 생각'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마인드 맵 형태로 그리도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학생의 생각을 코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각적 예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참여 학생들의 사고력 배양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미국의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육의 효과성 연구 사례		
Hardiman et a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무용,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교육의 효과성 검증 ·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5학년 학생 대상 전통적인 과학수업과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수업 참여 효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과학수업에 비해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육 참여 아동들이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다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이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규명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이 다른 교육분야와 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효과성 측정 사례		
Hebert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톤가(Tonga)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밴드(ATYB; Auckland Tongan Youth Brass) 활동의 영향을 참여관찰과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이용한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ic study)를 통해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bert는 ATYB의 단원이 톤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밴드 역할을 지역사회의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밴드 활동의 중요성을 음악적 정체성과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해석 · ATYB 참여는 단지 음악 참여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를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
Henley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관찰방법 적용 · 자료수집은 2명의 참여자 중심 진행 · 수집 자료는 참여자 2명의 참여행동을 각각 내러티브 방식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18-24세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이 범죄 재발을 낮춘다는 사실을 검증
Countryman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인터뷰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 · 예술교육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참여 중, 또는 참여 직후에 평가한 것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6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33명 중 30명은 졸업 이후 음악과 관련한 공식적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시절 음악 활동 경험은 자존감, 소속감, 자부심 향상 ·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회상
Campbell, Connell & Beegle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MusicEdge 주최,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의 음악교육 축소 반대' 주제의 에세이 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의 중, 고등학생 1,155명의 글을 내용분석 · 참여자들에게 음악교육이 갖는 의미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은 음악교육에 대해서 개인과 그룹 정체성 형성, 즐거움, 표현, 감정 해소와 통제와 같은 정서적 영역, 친구 관계, 다양성 수용, 학교 및 가정생활 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 긍정적 가치 인식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성 측정 사례		
Wan, Ludwig & Boyle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 효과성 관련 7,405개 논문 대상 연구 목적에 부합한 286개 선정 · 이후 선정된 논문의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요소, 과정, 결과의 순차적 관계 설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발현 기제를 밝히는 논리 모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포괄하는 큰 그림 제시 · 장르(시각예술, 무용, 드라마, 음악), 참여 대상의 특성(연령, 지역, 인종)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교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 2)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ECLS-K)**
- 1998년에서 1999년에 유치원생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1학년, 3학년, 5학년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데이터임.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참여 활동에 대한 조사 진행되었던 1학년 데이터를 활용함
- 3)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NELS:88)**
- 미국 전역의 1천 개 학교의 8학년 이상인 2만 5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 데이터임
- 4) **호주의 Sound Link 사례**
- 호주 전역에서 지역사회 음악(community music) 활동이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음악이 개인 성장과 사회적 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효과 관점에서 지역사회 음악 활동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례임
- 5) **영국의 Talent25 사례**
- 문화예술 경험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유아부터 25년 간 추적 관찰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영국 레스터지역에서 2019년~2021년에 태어나는 영유아를 연간 100명씩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의 성장을 25년 간 추적 관찰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노출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연구비 재원은 영국예술위원회의 몽포트 대학의 매칭 펀드로 연구 첫 해인 2019년에는 약 43억 원을 조달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를 위한 시사점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방향성 제언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임승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⁶⁾

1.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의 방향성 제언

연구 방법은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연구의 방법을 먼저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에서 그동안 양적 연구의 집중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화와 일반화의 트렌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규명함에 있어 양적 연구의 다양성을 찾아보기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이 교육 만족도 평가이거나 사전-사후 설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일 시점 비교연구 정도이다.

만족도 평가의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 측정하는 경향성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만족도를 실시하는 주체가 교육을 하는 주체 측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행 과정상 결과에 오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험 설계의 경우, 현재 완벽한 실험실 설계 자체가 어렵기에 교육 효과가 규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드시 교육의 효과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효과 요인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그 안에 어떠한 역동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이에 기존 문화예술교육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설계에 있어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연속 선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 종재변수 등의 검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등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양적 연구에서 모형 설정 및 검증의 어려움과 교육 참여자들이 속한 다양한 삶 속에서의 깊이 있는 경험, 경험 안에서의 역동과 맥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양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최근 질적 패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기존 양적 연구는 분석결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조준용(2012)은 양적 자료의 의존성과 양적 연구방법론의 획일성 문제라 지적한다. 양적 자료는 측정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기에 대상자의 삶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Alcock, 2004).

그동안의 연구들은 혼합 연구라는 명분으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질적 연구의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의 보완 역할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연구 역량이 중요하다.

6) 본 장의 원고는 2019년 12월 6일에 개최한 <2019 문화예술교육 4차 콜로кви움> 발제자인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 사례 중심으로", 임승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효과연구 사례 중심으로" 원고를 활용한 것임

많은 연구에서 해당 연구 분야와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로 연구대상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질적 연구에서 질문은 때로는 구조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반구조화 되어 있으며, 주제는 정해져 있되, 질문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들어가기도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가 분석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는 대상자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표정과 행위 등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에 투여되는 시간이 많고, 연구 대상자를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와 비용 등도 많이 소요된다.

또한 질적 연구가 질적 패널 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양적 패널도 패널 유실률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듯이, 질적 패널 연구 또한 종단 연구에 지속해서 참여할 대상자들이기에 효과적인 패널 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리 전략의 예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일원화된 연락, 생일 등 기념일의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질적 패널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연구 질문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aldana(2003)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인간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framing questions), 둘째,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s), 셋째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이다. 먼저,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들은,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가? 무엇이 축적되는가?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줄어드는가? 무엇이 지속되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은, “어떤 변화들이 경과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가?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 발달이나 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조준용, 2012 재인용).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에서의 분석은 주로 개방 코딩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질적 연구를 하는 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도 달라지지만, 좀 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의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론을 만들고, 유형화와 과정 연구를 중시하는 근거이론적 접근, 소수자 및 사람들의 경험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현상학적 접근, 단일 사례 및 유사 사례들을 모아 연구하는 사례연구 등 다소 분석과 그 내용에 있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시도들과 연구물 등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삶에 대해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양적 연구로 사장될 수 있었던 결과들이 정책적 제언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사례를 통한 방향성 제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과 관련한 다수의 해외 연구 사례 고찰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려는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선행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이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평가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활발한 협업의 필요성이다. 해외 주요 사례들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여러 주체의 협업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평가 과정의 협업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다각적 관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효과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패널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통한 효과성 평가이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성과 관련한 다수의 해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효과적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도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에 문화예술 경험이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여 패널 데이터 구축에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경험과 관련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유연성과 다양성의 필요성이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해외 연구들에서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주로 개인발달, 인적 관계, 사회적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1~2개 효과 지표에 집중하기도 하고, 소수 사례의 심층 분석과 같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보다 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 등과 같이 연구 성격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연구에서 주류가 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다수의 효과성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검증 노력뿐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의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결과적 측면과 함께 효과성의 발현 기제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관심과 측정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국내 다수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최종 결과 요인 규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해외연구 사례 고찰을 통해 다수의 연구가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발현 기제인 과정, 맥락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과성 규명의 층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투입요인과 과정요인을 포함한 효과성 발현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하며, 프로그램 및 장르 특징, 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생애주기별, 사회 심리적 특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면밀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이용한 교육과정의 다변화에 따른 다각적 관점의 평가방식의 통합적 접근과 변화의 필요성이다. 각각의 연구 방법은 내재된 방법론상의 이점과 함께 원천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이한 연구 방법의 통합적 접근은 각각의 연구 방법이 지닌 장점을 취하며 한계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이용한 새로운 고습법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효과성의 검증 연구 방법의 변화 방안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의 모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더욱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현실적 접근 방법 찾기

: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 전문가 논의 정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교육R&D팀⁷⁾

● 기존 효과성 연구에 대한 궁금증

<문화예술교육 4차 콜로кви엄> “문화예술교육 효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현장에서는 사전에 취합한 참여자 희망 토론주제를 종합하여 좌장인 박소연 교수가 세 가지로 질문을 정리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제는 아래 3가지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 정말 효과가 있는가?

김인설 교수는 효과성 측정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과정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교육 및 사회적 기능 등을 도출하는데 주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지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긍정적 효과만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주장하며,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본인 눈에는 띄지 않는 것에 대해 먼저 **불안감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중도 포기한 아동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음악보다 과학이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는 것이다. 또한, 60세 남짓한 대상자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공연장을 데려가서 거부감이 들었으나, 50세가 넘으니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공연장을 다시 찾게 되더라” 는 인터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린 결론으로 **결국 문화예술교육은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과정, 그 자체가 효과이기에 기다림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나?

먼저, 정경은 교수와 임승희 교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협업” 또는 “사회성” 으로 설정할 때,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왔는지, 나왔다면 이것이 효과이고,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효과성 측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효과성 측정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다.

7) 본 장의 원고를 위한 원시자료는 2019년 12월 6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소재 공공그라운드에서 개최한 2019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4차) 속기록을 기반으로 참여 좌장-박소연(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발제자-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임승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발췌 및 요약정리 한 것임

아울러, 효과성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흔히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아쉬워하며 효과가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재탐색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을지, 또는 낮은 효과요인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연구자-현장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임승희 교수에 따르면, 첫째,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간결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왜 이것을 조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성 검증 결과를 우리 조직 내 누구와 공유하고 어떤 목적으로 언제 활용할지가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활용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 조사지와 척도집을 참고하는 등 설문지 기획 구성이 필요하다. (이때, 참고 자료는 웹 기반 조사를 추천했다). 넷째, 엑셀이나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여 평균값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정량분석 이외에도 참여자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 등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한편, 김인설 교수는 숫자로 명확히 이야기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공임이 많이 드는 연구로 양적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가설 (예: A 현장에서 B 교육을 했더니 C 결과가 나왔다.)에 대해 이것이 어떤 맥락으로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법의 질적 연구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3.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대상과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효과 연구를 시도해볼 수 있을까?

김인설 교수가 진행했었던 “예술기반 질적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예술치료 대상자의 사례를 들었다. 그림을 그려보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 이후 현재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클레이나 찰흙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남겨놓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꾸준한 관찰, 인터뷰를 통해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무엇인지 기록하여 시간의 변화와 추이를 읽어낼 수 있는 활동 자체가 효과성 측정 과정이며, 관찰일지 같은 글 작성 이외에도 그림 그리기, 클레이 찰흙을 활용한 조각 활동, 신체 동작 표현 등이 결과적으로 볼 때 효과성 측정에 있어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자기기입 방식의 일반적인 설문지 기법 이외에도, 예술적 매체와 도구를 활용해서도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나가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에 대한 콜로퀴엄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효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상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에 대한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대상의 변화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효과를 이야기함에 앞서, 1)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해야 하며, 2) 현장과 이론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과정, 그리고 3) 서로 다른 구성원이 함께 모여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자주 일어날 때, 비로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 각자의 목적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보람으로 드러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